

동성애자인권연대

Tel 02-238-0609

Fax 02-253-2179

(화-토: 오후 5-9시)

Dyke5

인권 자료소		
등	11	36

발행인 나선우
 편집인 송초아
 발행일 1998년 12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97호 110-600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신문입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발행 격주간 신문 「다이크」

즐겁고 행복한 동성애자들의 단체

동성애자인권연대

안녕하세요?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련) 대표 나선우입니다.

동인련은 동성애자 억압에 반대하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그리고 이성애자가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인류의 자연스러운 생활 양식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 사례속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익의 성호사설에 따르면 신라화랑들 사이에 동성애 관계가 존재했음을 언급하고, 남사당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에이즈를 들먹이며 동성애자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에이즈는 바이러스일뿐 동성애와는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중 4분의 1정도가 동성애자이고 그 나머지인 4분의 3은 이성애자입니다. 에이즈 퇴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이러스가 묻은 주사바늘 등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과 안전한 성관계(safe sex)일 뿐입니다.

에이즈로 동성애자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더욱 음지로 내몰고, 진정한 에이즈 퇴치를 방해할 뿐입니다.

동인련은 동성애자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라는 명칭에는 '인권'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인련은 동성애자 억압의 기원과 억압을 깨뜨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은 등의 주제로 회원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2면에 계속

동성애자인권연대 일일호프

98년 12월 12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카페 예우 (248-8030)

98년을 정리하는
다이크 송년호

■ 다이크는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입니다. 다이크에 참여를 원하는 분은 동성애자인권연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DEX

동성애자인권연대 연혁 · 3

동인련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칼럼 · 4 · 6

그동안 다이키지에 실린 칼럼들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들을 골라보았다.

동인련은 · 7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인권법 안에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금지'와 '정치적 신조'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인련은 동성애자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차별 금지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찾으려는 행동입니다. 동성애자 해방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맥을 같이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인권단체가 '여성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민가협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메이데이나 민중대회에 참여 등 여러 행사나 투쟁에 참여한 것은 동인련이 여성억압에 반대하고, 양심수 석방에 지지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 억압은 여성억압이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억압과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만이 싸운다면 완전한 동성애자 해방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인련은 억압에 반대,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동성애자 억압에 같이 반대하자고 호소합니다.

또한 동인련은 한동협 소속 단체로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동성애자 단체 협의회는 23개 동성애자 단체가 모여 만든 단체입니다. 한동협은 '인권법 제정과 인권기구 설치를 위한 공동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원칙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모든 성적 소수자들의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인권 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등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원칙은 동성애자인권연대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위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1. 우리는 현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2. 우리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3. 우리는 성적소수자들 내부에서의 모든 유형의 소외와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성적 지향성에 의한 차별을 비롯한 계급적, 계층적,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
5.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조직과 유지에 기여한다.
6. 우리는 다양한 동성애자 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7. 우리는 노동자, 여성 등 억압, 탄압, 소외된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8. 우리는 개인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9.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한다.
10. 우리는 동성애자 인권단체간의 연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성적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연혁

1년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동인련의 지금까지의 활동들을 정리해 보았다

1997년 9월 8일
가칭 범대학동성애자인권단체 건설준비위원회 발족 (준비위원 9인으로 시작)

1997년 11월 2일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대동인(大同人)' 정식 출범
교육소식지 제1호 발간
제1회 MT
제1기 교육 시작 (98년 12월까지 13기 교육 완료, 연인원 500여명 참가)

1997년 12월 21일
홍보와 기금마련을 위한 이벤트 '맛있는 불량식품' 개최 (신촌 레즈비언 바 라브리스)

1998년 1월 16일
<왜곡된 언론보도와 에이즈정책에 대항하는 범동성애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제안 및 결성
1월 22일 대동인, 동인협 공동 성명서 발표
1월 26일 한국에이즈퇴치연맹 1차 항의방문
1월 31일 결의대회
2월 14일 한국에이즈퇴치연맹 2차 항의방문, 전국연합 집회 연대투쟁

1998년 2월 9일
민주노총 대의원 임시총회, "노동자와 동성애자의 총연대를 위하여" 전단 배포

1998년 2월 22일
동성애자 인권지지와 기금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개최 (이태원 지퍼)

1998년 3월 8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주최의 '세계 여성의 날 90주년' 행사 참여

1998년 3월 15일
Dyke 창간 (현재까지 총 6호 발행, 98년 11월부터 격주간으로 발행)

1998년 3월 21일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토론회 참가, 질문

1998년 3월 21-22일
신입회원 환영 MT

1998년 4월 13-24일
수도권 20개 대학 홍보

1998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 참가, 전단 배포

1998년 5월 8일
연대토론회 '동성애가 병인가?' 개최 (한양대)

1998년 5월 12-16일
인하대 공대학생회와 교육, 영화제, 연대토론회, 연대주점 등 개최

1998년 6월 23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주최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참가

1998년 7월 7일- 8월 13일
학술토론회 개최 (7주간)

1998년 8월 1일
동성애자인권연대로 명칭전환

1998년 8월 6-9일
민가협 주최 '98 양심수 석방을 위한 캠페인' 후원단체 참여

1998년 8월 14-16일
동인련 여름캠프

1998년 8월 22일
2기 대표로 나선우씨 선출

1998년 10월 28일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과 정책'에 관한 국회의원포럼 참가

1998년 11월 1일-15일
수도권 9개 대학 홍보

1998년 11월 8일
'98 민중대회 참가, 전단배포

1998년 11월 15일
에이즈 감염인 쉼터 '희망나눔터'와 가을소풍

동성애자의 정치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다양한 목적의 단체결성 및 문화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 속에서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정치적 질곡과 현실을 파악하는 입장이 선행되어야 함을 또한 강조한다.

동성애자와 억압은 같은 이름의 다른 표현이다. 어떤 동성애자는 부유하게 살고, 그가 동성애자인 것을 도리어 삶의 한 방편으로 삼는다고 하여 그가 정체성으로서의 억압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아니다. 즉 동성애자의 정체성은 억압과 그 억압에 항거하고 해방되어야 한다는 당위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의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다. 이성애자들의 도덕률과 타협하여 그들의 규제를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도덕주의'도 한 방편이다. 동성애자가 이성애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성애자에게 열심히 애원하고 설득하여 그들이 던져주는 동정이라도 얻어내면 다행이지 않느냐는 발상이고, 지금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주류이고 대세이다. 그들은 하위 문화 운운하며, 사우나와 극장을 혐오하고, 에이즈가 세이프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성행위 경험의 빈도와 연결된 것인양 열심히 이성애자 도덕률의 전도사가 되어 동성애자 내부에 꽤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다른 부류는 개발에 탐나도록 이성애자 흉내를 내어봤자 동성애자가 이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분리적 입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호박에 줄 굵는다고 수박되느냐는 자기비하이며, 해방의 포기라는 점에서는 도덕주의 세력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군상들이다. 그들은 동성애자로서의 삶에 충실한다는 전제 속에, 이성애자 겁낼 것도 없고 의식할 필요도 없다는 소위 귀여리즘 계열들이다. 주로 문화활동이나 그 구조 속에서 우아한 끼를 떨지만 해방의 대안이나 전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동성애자 해방의 문제는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성적, 사회적, 경제적-결국 정치적 억압의 문제이며, 이와 투쟁하는 정치운동이 궁극적 해결 방식이라는 주장에 많은 이들은 회의를 표한다. 체제만이 동성애자를 억압하는가? 즉 동성애자 해방의 궁극적이고도 실재적 방안으로 동성애자의 정치 세력화를 이야기할 때, 제기되는 질문의 대부분 출발선은 그 정치 세력화의 현실적 모습에 대한 의구심인 모양이다. 동성애자 당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유럽에 동성애자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당선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의회내 의석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없다.)

그러면 기존의 진보적 정당 안에서 동성애자 해방정책을 실현하고, 의회에 진출 할 것인가? 아니면 입력단체로서 인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존의 정치권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모두 동성애자 정치 내지 정치세력화의 현상적 모습 내지 유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치활동의 대안과 비탕에 진정한 동성애자의 정치는 동성애자가 해방됨으로서, 전체 인간에게 지워진 억압의 사슬이 동시에 풀린다는 인식 위에 지도력을 확보하겠다는 자신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사회의 지배세력들이 가족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우리 안에 가두기 위해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체제를 어떤 식으로도 유지 강화할 것이며, 그것은 어떤 정치화되지 않은 인권운동으로도 부술 수 없는 견고한 사슬이란 것을 깨달아야 된다. 중간계급적 나태와 안일은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해방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으로 문제의 본질은 어두운 게이바의 네온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해방의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같은 체제 안에서 억압당하고 같은 체제 안에서 해방될 세력과의 연대이다.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거나 꼬리를 내리는 답변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현상이 아니라 그 역동성을 관통하는 축적의 문제가 동성애자를 억압한다면 대안도 역동하는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대답이어야 한다.

그렇다. 지금의 유일한 대안은 노동자와 여성 등 억압받는 계층과의 연대이고 그들의 해방 속에 동성애자가 해방되며, 동성애자 해방 속에 노동자 등 모든 억압받는 세력들의 진정한 해방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다. 정치적 인식과 진정한 연대세력의 농축은 결국 인권운동의 결말이 어떤 모습인가를 아주 잘 보여준다. 방송출연, 책 출간, 토론회... 그것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일 뿐이다. 그러한 활동이 미치는 각 부문적이고, 연대의 밑바탕이 되는 활동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활동 속에 동성애자끼리만의 연대와 삶에 안주하고, 동성애자 해방의 정치적 인식과 연대를 차단하는 모든 분리적 역할 분담론을 경계한다.

우리는 동성애자에게 지워진 억압과 그 해결의 방안으로서의 정치와 노동자와의 연대를 이야기할 때 이성애자는 물론 동성애자 집단 안에서도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음을 도리어 기뻐한다. 동성애자의 해방을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 '동성애자 정치'의 문제는 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동인련 교육국장 최이연

카페 '예우'

藝雨

비와 예술 그리고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도타이어에서 좌회전 같은 건물 2층 카페 '예우'		예우	
		수도타이어	
장한평역 5번 출구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6번출구			
248-8030			
		ZIPPER 지하1층	
		해밀턴 호텔	
796-8876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병?!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정민숙씨 대법원 패소 사건을 계기로 구체적인 에이즈 감염자 인권운동에 뛰어 들었다. 대책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Dyke3호에 게재한 바가 있다. 대책위 구성과 실행에 앞서 이번 동인련의 사업에 대해 있을 수 있는 반론들을 예상하고 그것에 관한 동인련의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이 글을 쓴다.

우선 필자가 생각하는 '있을 수 있는 반론'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야 하겠다. 그것은 첫째, 정민숙씨 패소 사건은 동성애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민숙씨가 동성애자가 아니고 HIV 감염도 동성애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동성애자인권연대가 그 사건을 내세워 에이즈 감염자 인권 운동을 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 하나의 반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동성애자인권단체가 에이즈 감염자 인권운동을 하는 것은 에이즈를 동성애자의 질병으로 보는 편견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려에서 나온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우리는 에이즈가 결코 동성애행위만으로 감염되는 질병이 아니며, 성적체성과 관련 없이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것을 일반에게 계속 알리고 설득하여 에이즈와 동성애가 동일시되는 편견을 깨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동성애자인권단체가 그 이름을 걸고 에이즈 감염자 인권운동을 하는 것은 운동의 방향에 초를 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동성애단체가 에이즈 감염자 인권운동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동성애와 에이즈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논지이다.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편견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보다 그 폭이 더 넓다.

에이즈는 이성애주의에 편승하여 동성애자 억압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고, 순결 이데올로기를 업고 성관련직업종사자의 질병이 되기도 하며, 기독교 세력에 의해 종교적 단죄의 색깔을 띄고 나타나기도 한다. 에이즈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보수세력이 사회질서유지에 반하는 계층을 소외시키는 도구로 널리 이용된 것이다.

따라서 에이즈가 동성애자의 질병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무관성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에이즈가 윤리적, 종교적 의미를 띄고 출현한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인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하고, 에이즈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에이즈 감염자 전체의 인권이 보장되고 편견이 사라지는 날, 동성애자도 에이즈에서 해방될 수 있다.

동성애와 에이즈를 연결시키는 편견을 종식 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참하지 않는 동성애자인권단체가 어디 있으랴. 그러나 편견을 깨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현실적 고찰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에이즈 환자에 대한 멸시와 혐오가 결국 호모포비아와 억압의 근원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동성애 성행위가 아무래도 높은 에이즈 감염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편견에 의해 억압당하는 에이즈 감염자가 명백히 존재하는데,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동성애자인 것도 사실인데, 동성애와 에이즈의 무관성만을 주장하며 그들의 문제를 모른 척 한다면 그것은 명분과 체면을 위한 운동이 돼 버리고 마는 것이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에이즈 감염자 전체의 인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민숙씨가 동성애와 관련 없는 HIV 감염자라 할 지라도 이번 사건은 우리가 정당하게 관심을 둘 수 있는 사건인 것이다.

아직 국내에서 에이즈 감염자 인권문제는 그 준비 단계도 미비한 상태이다. 동성애자인권단체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이 이번 사업에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

동인련 출판국장 송초아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인련은

97년에 설립된 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로, 주목적은 동성애자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활동과 동성애자 공동체의 원활한 조직과 유지에 있습니다. 동인련은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하며, 투쟁하는 단체입니다.

회원

동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인련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입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후원회원

약정하신 후원금을 납부하시고, 일 열심히 하라는 격려를 하시면 됩니다.

신입교육

3주에 걸쳐 재미있는 토론식 교육이 진행됩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회비

낼 수 있는만큼 내시면 됩니다.

사무실

사무실을 여는 시간이면 언제나 오셔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상근시간

화-토요일 오후 4-9시까지

주간일정

- 월 휴무
- 화 세미나
- 수/목/금 아무나 편히 오시면 됩니다.
- 토 신입교육 (오후 4시)
- 전체회의 (오후 7시)
- 일 현대문화연구회에 장소대여 (문화회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에 부쳐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50돌 되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의 주요내용을 보며, 한국의 인권상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공약한 인권법 제정은 잘 추진되지 않고, 법무부안에 따르면 성적지향성에 따른 차별금지와 정치적 신조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 여성이나, 동성애자, 학생, 외국인 노동자 등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한국의 상황에선 부재한 상태이다. 실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조차 한국의 상황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5대재벌계획에 의하면 12-17만의 정리해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노총은 5대요구를 내놓으며 12월 12일 2차 민중대회를 열고, 투쟁을 하려고 한다. 이미 300만 이상의 실업자가 존재하고 여기에 또다시 실업자군을 양산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동인련은 정리해고에 반대하고, 12월 민노총 총력투쟁을 지지한다. 이러한 투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노총도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 동성애자 등 억압받는 사람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해야 한다.

민가협 의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하기를 바라고, 이것이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동인련 대표 나선우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회원이 되십시오

잘 키운
동성애자 하나
열 이성애자
안 부럽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적소수자들의 단체입니다.
동인련은 성적소수자들이
편하게 이야기하고 설 수 있는 곳입니다.
동인련에서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적소수자와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성적소수자
에이즈 감염인
인권침해 사례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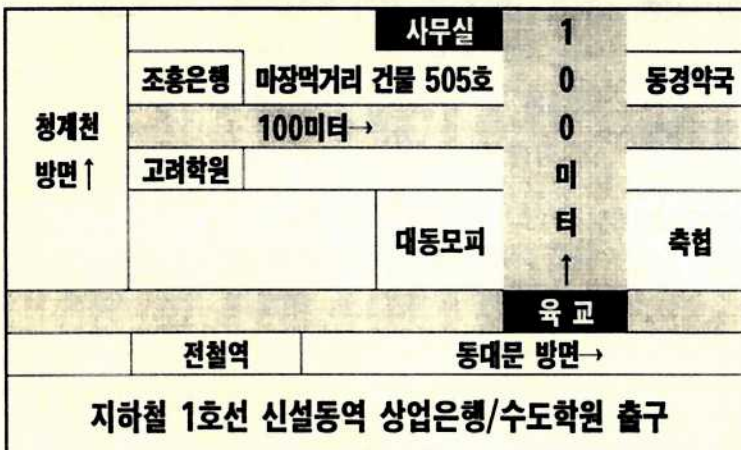
성적소수자와 에이즈 감염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병행합니다.

후원계좌

계좌번호: 상업은행 849-07-016135 양지용
동인련은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다달이 사무실 월세도 내야
하지요. 신문도 찍어야 하지요. 홍보도 해야하지요. Gay와
Lesbian은 돈이 없어요. 후원금 좀 내 주세요.
추신: 30만원 이하는 실명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약도

문의전화



238-0609

(화 일 오후 4-9시)